

2022학년도 제1회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2022학년도 제1회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교수학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교수 학습 개발 센터

CONTENTS

I.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참여 프로그램 안내 3

II. 수상작

최우수 7

최수현(경영학부) | 코로나 학번의 학습공동체 참여 여정

우 수 14

김준영(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 협동이라는 것은

박건우(행정학과) | 나의 목표 설정은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건우(철학과) | '철학함'을 가르치며 '철학'을 배운 전공튜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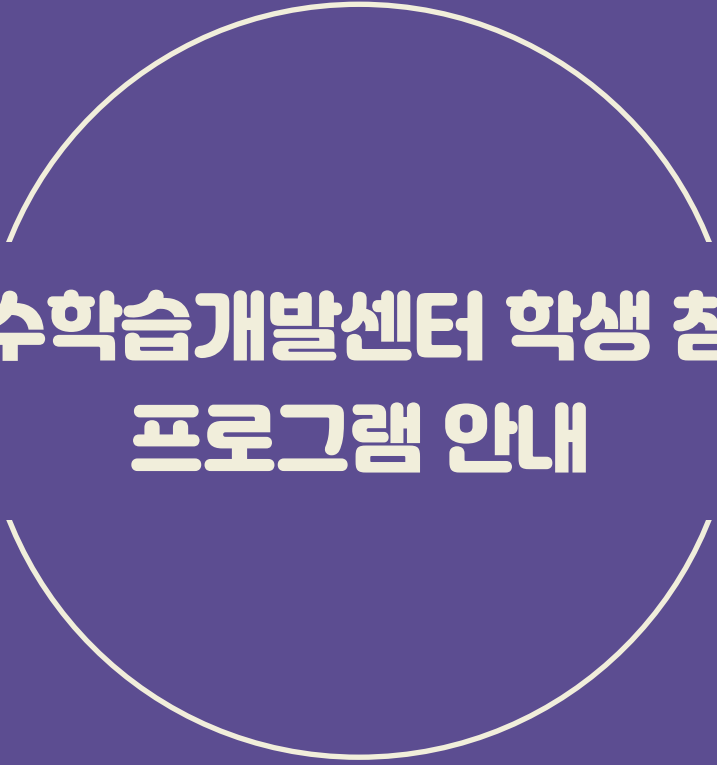
장 려 28

김연주(도시사회학과) | 발전의 기회를 준 튜터링 프로그램

박정하(공간정보공학과) | 자주적인 학습의 결정체, 학습공동체

양동혁(국제관계학과) | 후회하지 않는 선택

유동근(경영학부) | 외적, 내적 성장 모두 이룰 수 있었던 시간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참여
프로그램 안내**

1.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참여 프로그램 안내

UOS 학습공동체	참여대상 : 학부 재학생(휴학생 불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공동체 자기 주도학습을 통하여 성과를 달성하는 프로그램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정
	- 활동지원금 60만원 - 우수활동팀 포상, 총장상 수여 등	매년 5월/8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기 6~9월 2기 9~12월
시대튜터링(舊 전공튜터링)	참여대상 : 튜터-학부/대학원 재학생, 튜티-학부 재학생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수업 이해와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튜터링 활동을 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 학습도우미 : 1:1 또는 1:소수 - 수업보조(TA) : 교수자의 교과목 강의 수업 보조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정
	- 활동장학금 지급 (튜터) - 활동우수팀 포상 (학습도우미)	학부 · 과별로 튜터/튜티를 선발하여 공문 신청	매학기 신청 (2~3개월 간 활동)
STEP-UP	참여대상 : 학부생		
대학에서의 공부법을 익히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주제들로 구성된 워크숍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정
	5회기 이상 참여자 수료증 및 이수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UOStory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안내 참조	매학기 초 신청 (8주간 운영)
학업(學)UP	참여대상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학사경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방법 및 학습효과 향상법에 대한 특강 실시 수료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학점 제한 완화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정
	- 수강신청 학점 제한 완화(14→17학점) - STEP-UP 개인/그룹 컨설팅 1회만 참여 시 수료 혜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UOStory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안내 참조 (학기별 신청 대상자 개별 안내)	매학기 방학 (7월/1월)
학습법 특강/워크숍	참여대상 : 학부/대학원생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특강 및 워크숍 개최 온라인강의실 내 공개강좌 -러닝팁스 운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정
	비교과 활동 참여 포인트 지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UOStory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안내 참조	연중 수시
참여수기 공모전	참여대상 :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 개최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정
	(최우수)총장상, 교수학습개발센터장상 및 부상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매년 하반기 (10월 ~ 12월 예정)

2. 온라인강의실(LMS) 이용 안내

- PC 버전 온라인강의실 이용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uos.ac.kr/>) 로그인 → 상단 바에서 '온라인강의실' 클릭
- 온라인강의실(<https://www.uclass.uos.ac.kr>) 접속 → 포털시스템 ID/PW 입력 → 로그인

- 모바일어플 버전 온라인강의실 이용 방법

- App Store 또는 플레이스토어 접속 → '코스모스' 검색 후 다운 → '학교란' 클릭 후 '서울시립대학교' 검색하여 선택 → 포털시스템 ID/PW 입력 → 로그인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운영 안내

- **K-MOOC란?**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 **수강방법** : K-MOOC 사이트(<http://www.kmooc.kr/>)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K-MOOC 웹페이지(<http://www.kmooc.kr/school/UOSk/>) 접속 → 강좌명 검색 또는 선택 → 수강 신청

- **수강혜택** :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수증 발급(단, 청강 모드 제외, 강좌별 상이)

- 서울시립대학교 K-MOOC 개발 강좌 목록

연번	강좌명	개발교수자 (소속)	강좌 분야	강좌 구분	주차
1	쉽게 이해하는 FTA	성한경 (경제학부)	사회과학 (경영·경제)	전공기초	8
2	시민을 위한 도시학개론	정석 (도시공학과)	공학 (토목·도시)	교양	8
3	민주주의 :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임동균 (現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공기초	8
4	고려의 유산	이익주 (국사학과)	인문 (인문과학)	교양	8
5	시민을 위한 정부회계	최원석 (세무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공기초	15
6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이야기	신창환 (現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공학 (전기·전자)	전공기초	15

연번	강좌명	개발교수자 (소속)	강좌 분야	강좌 구분	주차
7	쉽게 시작하는 기초선형대수학	박의용 (수학과)	자연과학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전공기초	9
8	도시성장기 서울의 도시 개발 경험, 1960-2010	강명구 (도시공학과)	공학 (토목 · 도시)	전공기초	15
9	알기 쉬운 분자생물학	유권열 (생명과학과)	자연과학 (생물 · 화학 · 환경)	전공기초	9
10	성공하는 사업자를 위한 법인세 세무전략	이영한 (세무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공기초	17
11	마켓과 ING하기: 마케팅 고수가 되기 위한 원리	이성호 (경영학부)	사회과학 (경영 · 경제)	전공기초	15
12	장애, 체육을 만나다: 장애인 체육 제대로 알기	진주연 (스포츠과학과)	예체능 (무용 · 체육)	교양	15
13	레이저란 무엇인가? 기초에서 응용까지	이주한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 (토목 · 도시)	전공심화	15
14	도전! 국제조세법 101	양인준 (세무전문대학원)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공심화	15
15	국제이주의 이해	이병하 (국제관계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공기초	15
16	여성과 정치	김민정 (국제관계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교양	15
17	인공지능 만들기: 기계학습방법론의 이해	전종준 (통계학과)	공학 (컴퓨터 · 통신)	전공심화	15
18	도시와 건축 실무의 접점, 단지계획	유석연 (도시공학과)	공학 (토목 · 도시)	전공기초	15
19	정의롭고 좋은 삶에 관한 이야기 - 플라톤 <국가> 읽기	이종환 (철학과)	인문 (인문과학)	교양	15
20	소재가 빛어내는 문명의 화음	홍완식 (신소재공학과)	공학 (소재 · 재료)	교양	15
21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음악 수업	전기홍 (음악학과)	예체능 (음악)	교양	15
22	알기 쉬운 가족법 - 태어날 때, 사랑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적용되는 법	권재문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 (법률)	전공기초	15
23	서울 거버넌스 2020	이주현 (행정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교양	15
2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히트펌프 입문	이동찬 (기계정보공학과)	공학 (기계 · 금속)	전공기초	15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카카오톡채널(@uosctl)

최우수상

최수현 (경영학부)



최우수상

코로나 학번의 학습공동체 참여 여정

참여 프로그램 |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 경영학부 20학번 최수현

2년의 비대면 수업을 거치며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을 찍었던 ‘코로나 학번’인 제가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고 싶은 분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2022년도 6월~8월의 여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습공동체가 무엇인가요?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소모임을 다방면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모임은 스스로 조직할 수 있으며, 조별로 다르지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학습공동체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PPT 사용법, 성공적인 PT법 등 대학생활에 도움되는 강의를 지원하고, 오리엔테이션과 중간간담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팀의 주제를 상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 그 중, 팀의 주제가 방향성을 잃어갈 때 중간간담회에서 교수님과 주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학습공동체의 결과물을 보았던 것이 저희 조 활동을 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활동이기에 설명이 길어지지만 정말 후배들에게 무조건 하라고 추천해 주고 싶은 활동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어떻게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학습공동체 2022-1기로 6월부터 8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조 이름은 ‘하이배터리’로 2차 전지 산업과 산업 내 기업을 분석하며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분석과 산업에 주는 거시적인 경제요소를 공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 조는 경제학부 내 소모임 FEDS에서 2팀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그대로 ‘하이배터리’가 되었습니다! FEDS에서 ‘엘엔에프’라는 기업 분석을 했고,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저희는 기업 분석을 좀 더 발전시켜 여러 기업을 살펴보며 큰 산업에 대해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팀원 한 명의 제안으로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희 조의 최종 목표는 ‘2차전지 산업 분석’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차전지 산업의 고유한 특성 알아보기(타 산업에 비해 원자재 비중이 높다, 전기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 현상 등), 한 산업 내의 여러 기업들의 재무 지표를 활용해 각 기업별 특성 분석하기, 산업에 영향을 주는 현재 경제 상황 파악하기(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3단계 정도로 나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산업 이해를 위한 기초 경제지식 스터디

산업 분석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경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산업 분석을 하기 위해 저희 조는 1~3주차 동안 인터넷 기사, 논문, 경제 신문과 도서를 활용하여 경제지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환율, 물가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석에 쓰일 수 있는 경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2차전지 산업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자재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기에 거시적인 경제 요인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2차전지 산업이 가지는 특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내재화 예시
LG에너지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0년 4만 톤 -> 26만 톤으로 늘릴 예정 • LG전자로부터 분리막 사업을 인수하여 분리막 사업을 조 단위 규모로 육성할 계획
삼성S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인 예스티엠에 양극재 제조 설비 일부 양도 및 예스티엠의 1,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과 합작 공장 설립
SK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인 아이테크놀로지 상장 • 1조 1300억 원을 투입해 폴란드 공장 증설 • 중국 배터리 기업 EVE 에너지,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 BRT와 합작 투자를 통해 공장 설립



2단계: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재무분석 및 기술 학습

산업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산업 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배터리 3사(SK on,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의 주요 현황을 신문, 인터넷 기사를 통해 파악해 보고,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와 같은 팀원의 전공 서적을 통해 2차전지와 기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2차전지에도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등 다양한 배터리가 있고, 그에 따른 제조 기술과 거래 기업도 다 달랐습니다. 2차전지를 이루는 원자재 구성물에 대해서 특히 주의 깊게 공부했는데, 구성물에 리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리튬의 수출입 경로를 알고, 수출입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의 재무지표를 활동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부문으로 나눠 재무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재무관리에서 단순 지표의 수치만을 가지고 분석했던 것과 달리 산업의 특성을 알고 지표들을 보니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나 안정적인 수익성이 지표에서 보여 색달랐습니다.

2.4.3. 수익성 지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매출액순이익률	4.46%	8.95%	4.15%
영업이익률	5.71%	7.96%	5.02%
자기자본이익률(ROE)	5.04%	9.80%	-0.02%
총자산이익률(ROA)	2.59%	5.98%	0.26%
매출원가율	82.21%	78.87%	90.51%
매출총이익률	17.85%	21.13%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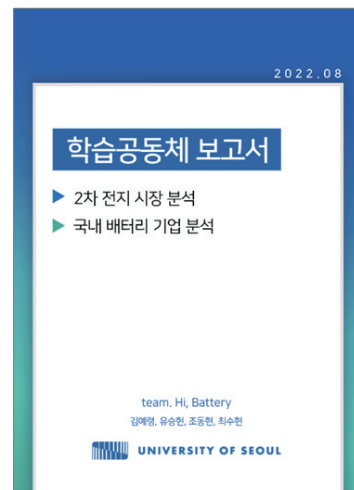
2.4.4. 성장성 지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매출액증가율	2.07%	36.65%	72.93%
영업이익증가율	-24.12%	142.02%	23.08%
순이익증가율	-47.41%	141.80%	2.3%
유동자산증가율	106%	8.31%	-0.05%
채고자산증가율	8.41%	11.6%	53.8%



3단계: 현장학습을 통한 2차전지 기술 심화학습 및 최종 마무리

팀원 한 명이 환경공학부 교수님께 도움을 청해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윤하나 연구원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서로만 공부하던 리튬 배터리를 실제로 볼 수 있었고, 연구원님의 설명을 통해 최근 배터리 산업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을 활용한 배터리,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변형이 가능한 배터리의 내구성 강화 등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어떠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경영학부생이기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연구실도 들어가 보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실습 내용을 정리해 마무리하고, 저희의 학습 내용을 담은 책자를 구성한 뒤 저희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나요?

전공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서 활동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재무관리를 배우게 되면 단순 기업이 재무지표만을 배우고 그의 개별적인 의미만 배울 뿐 하나의 산업의 특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에 금방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습공동체를 통해 직접 한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개별 기업의 재무지표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며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과 같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원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상황에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머릿속에도 오래 남는다는 걸 깨닫게 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공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보고 싶다면 그를 학습공동체 주제로 구체화시켜 지원하는 것도 전공 역량을 키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습공동체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도전에 대한 두려움 극복

저와 같은 코로나 학번들에게 학습공동체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20학번으로 2020, 2021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며 ‘내가 전공에 대해 잘 배우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해서 들었습니다. 줌으로 시작해 줌에서 끝나는 가상 수업에서 과연 내가 얻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과 성과가 보이지 않자 점점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2년 간의 외부 활동이 한정적이라 보니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이 컸습니다. 그러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 학습공동체에 지원하게 되었고,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제 도전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 제 학습에 대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되었고,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습공동체는 ‘얼마나 잘했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정 있게 학습을 하고 있는가?’에도 중점을 두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제가 학습공동체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운 좋게도 최우수팀으로 선발되어 상도 받고 발표도 해 보며, 괜히 움츠려 있던 제 1,2학년 시절이 후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이 도전을 두려워하고, 길어진 비대면 생활에 막막함을 겪

고 있던 코로나 학번들이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2. 학술적인 목표를 위해 함께 공부하는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은 비교적 쉽게 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이 다같이 모여 있다보면 처음 목적은 학술적인 목표일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고 친목 위주로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학습공동체를 하다 보면 소모임들의 지원자이기도 하지만 감시자이기도 한 담당자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절대 친목 활동으로만 빠질 수 없고, 학술적 목표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학습공동체를 통해 예산도 지원받고,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성과도 비교적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공동체를 하며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경영, 경제, 환경공학 비교적 다양한 학과가 모인 조였기에 잘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각자 무엇을 잘하는지 명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학부이기에 PPT 구성이나 디자인에 민감하게 굴기도 했고, 환경공학부 팀원들은 2차전지 관련 지식을 저희에게 이해시키느라 많이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동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 잘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쌓이다 보니 역할 분담도 잘 나눠졌고, 서로 타협해가는 방법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팀 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조건 맞아!'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타협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학습공동체 활동을 너무 만족스럽게 했던지라 제 친구가 재학생이라면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중간간담회나 마지막 우수발표회 등 여러 학우들의 활동을 보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온 건 정말 나에게 큰 행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각자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니 학습공동체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학교 커뮤니티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조를 이뤄 좋은 경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활동 전체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 분들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보여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발표 때도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참여수기가 현재 도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학우에게 닿아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우수상

김준영(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건우(행정학과)

이건우(철학과)

협동이라는 것은

참여 프로그램 |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8학번 김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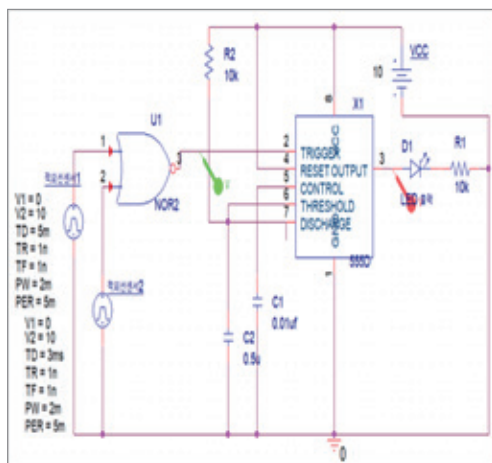
우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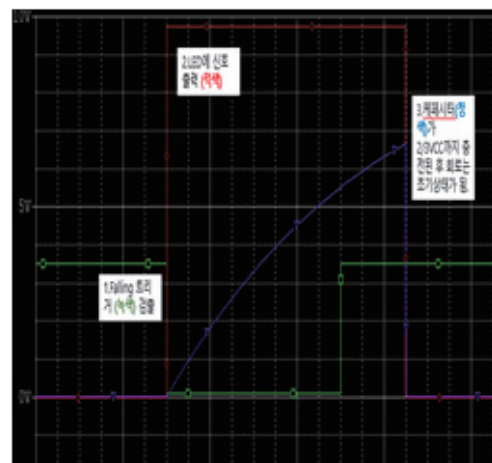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한 UOS 학습공동체입니다. UOS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타인과 한팀을 이뤄 전공공부나 취업역량개발을 위한 공부들을 진행하고, 공동체 기반의 학습문화 형성을 통한 핵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저의 동기는 대한 전자공학회에서 주관하는 ‘제 5회 창의IT챌린지’라는 외부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학교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였고, 계획 잘 세우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대회를 준비하는데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입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UOS 학습공동체를 하며 저희는 사전에 계획해놓은 회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모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안전 횡단보도’였는데, 법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에서 야간에 보행자를 감지하여 도로에 매설된 LED 기능을 이용해 차량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회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먼저 9월달에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회로를 손으로 그려보고, Pspic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시나 시뮬레이션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문제점 진단, 수정 및 재확인 과정을 반복하여 저희가 원하던 작품인 ‘안전 횡단보도’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시스템 구현에 적합한 재료들을 선정해 센서와 이를 이용한 임시회로의 동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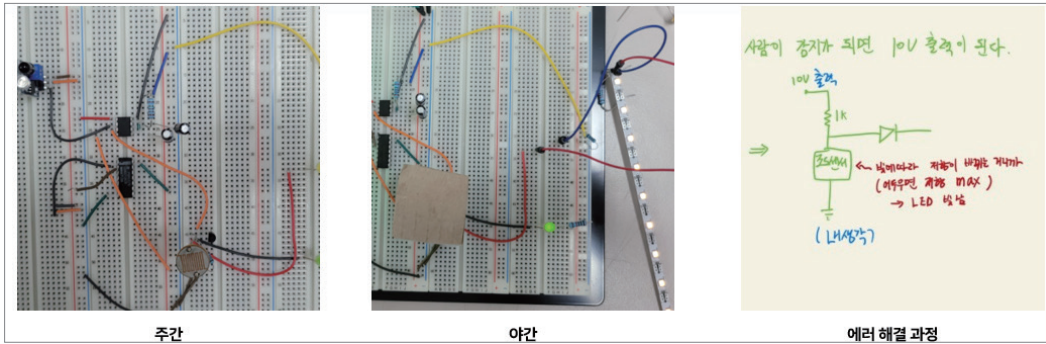


▲ 임시회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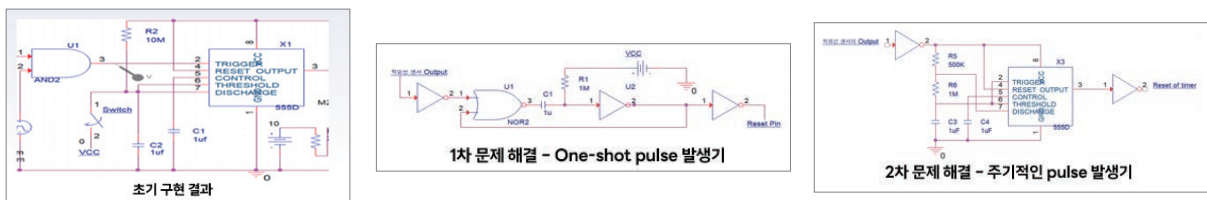


▲ 시뮬레이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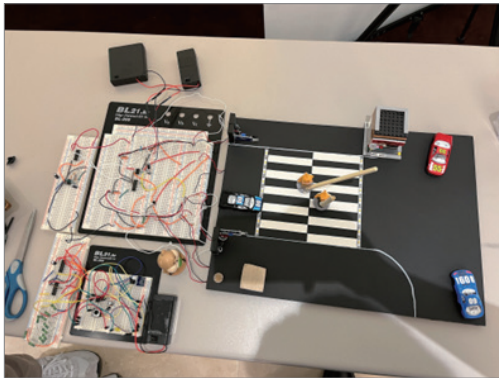
그 후 10월달에는 본격적으로 고안한 회로를 직접 소자를 이용해 구성해보고, 예상대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수시로 팀원과 모여 확인하며 수정과 검증을 한 달 내내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던 보행자 감지와 10초간 LED가 점등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인지하기 위해 서있는 경우는 timer의 카운트가 전혀 동작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몇 일전에 다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시뮬레이션, 구현 및 검증 등을 이용해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 중 한명의 아이디어를 따라 센서와 이어져있는 AND gate의 출력을 timer의 reset부에 넣으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들어올 때마다 timer가 reset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회로로 구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경우 계속 센서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 계속 타이머가 reset되어 LED가 아예 소등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하루 종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람이 서있는 동안 reset에 계속 1이 들어가는게 아닌 Pulse형태로 짧은 시간만 1이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one-shot pulse 회로도를 찾아 이를 만들어 횡단보도에 적용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지되는 그 순간 reset되긴 하나 오래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경우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10초가 진행되어 막상 건너면 LED가 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 다시 하루종일 해결법을 연구한 끝에 주기적인 Pulse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적용해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주기적으로 pulse를 준다면 사람이 얼마나 서있던 주기적으로 reset이 되기 때문에 위에 두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ulse 발생기 회로를 찾아 구현한 뒤 시스템에 적용하니 사람이 얼마나 서있던 횡단보도에 들어간 순간부터 10초가 카운트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하루종일 고민해준 덕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물론, 연구과정에서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시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가만히 서있는 경우 LED가 깜빡이도록 하여 차량이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또한 추가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월을 보낸 후 최종보고서를 간신히 끝마쳐 11월 말에 진행된 본 대회에서 문제 없이 시스템을 구현해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여 저희의 공동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동기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었던 성과는 먼저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야간에만 회로가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도센서와 회로를 어떻게 연결할지 서로 아이디어를 고민해오기로 했었는데, 각자 낸 아이디어가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방법이라 각 방식의 장단점을 서로 토의해보며 제일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며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고, 모두를 설득시키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전공에 대한 전문성 및 논리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던 ‘보행자 대기 LED’ 문제를 단계적인 절차로 해결하며 협업능력을 배양하였고, 고난이 부딪혔을 때의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들은 큰 프로젝트에서 작은 부분을 나눠 맡아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고, 서로가 각 방법에 대한 의심을 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단계적인 해결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이러한 성과들은 UOS 학습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이 추구하였던 ‘공동체 기반의 학습문화 형성을 통한 핵심 역량 강화’라는 목적과 맞아 학습공동체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성과로는 처음 나가는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노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학습공동체라는 프로그램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장려상을 받는 것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가시적인 학습 목표가 있는' 모든 서울시립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을 하는 학우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단순한 학습성과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는 어쩌면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임에 대한 동기가 사라질 수 있고, 결국은 프로그램을 소극적으로 참여해 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금상, 은상 과 같은 확실한 목표가 있는 활동이라면, 팀원이 모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주 모이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의사소통을 통한 협업이 잘 이루어져 '공동체 학습'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에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부터 교류를 해왔던 지인들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유대가 있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시너지가 더 클 것이고, 이러한 점이 큰 가시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학습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22년 2학기에 학업과 학습공동체를 병행하며 많지 않은 여유 시간을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였고, 진행과정에서 막혔을 때 밥 먹으면서도 이를 고민하는 등 하루에 신경을 여기에 쏟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환경에서 견뎌 꽃이 결국은 활짝 피듯이 고생한만큼 저희에 보람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며 느꼈던 경험들은 대학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어 아쉽지만, 2023년에는 지식의 나눔에 대한 가치를 알기 위해 전공튜터링 프로그램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과정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학습공동체 성과물을 제작하며 저희의 여정을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흥미가 생긴 독자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저희의 노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nscksehd.modoo.at/>

나의 목표 설정은 무엇이 부족했을까?

참여 프로그램 | STEP-UP

프로그램 참여자 | 행정학과 22학번 박건우

우수
상



#1. 지난 나의 삶과 설정했던 목표들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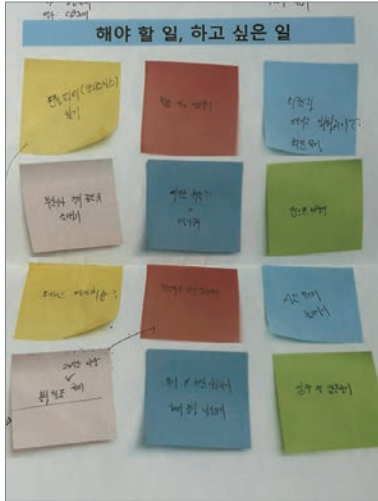
사람들은 흔히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만의 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목표 설정은 공부, 인간관계, 독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 개인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교양을 쌓고 싶은 누군가는 일주일에 책을 1권 이상 읽기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기 위해 제가 지금까지 설정했던 지난 목표들을 찾아보니 저는 성적과 건강을 우선시하여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1등급을 받고 싶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초반 1주일의 의지가 넘쳐납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며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변화한 나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성공,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인식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크고 어려운 만큼 달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좌절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자고 마음먹었던 저는 2주째에 접어들자 건강보다는 잠을 택했고 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저에게 스스로 아쉬움과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성했던 플래너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해서는 고등학생 때보다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한 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보다는 날마다 해낼 수 있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로 하루를 채워나가고자 했습니다. 큰 목표 위주로 작성되었던 플래너는 이후 작은 목표 위주로 변해갔으며 전보다는 원활하게 목표를 이루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법의 체계성이

부족했던 것인지 혹은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어느샌가 다시금 큰 목표를 설정하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체계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 나만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기르기 위해 2022년 2학기 STEP-



▲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구분

UP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료하였습니다. 활동에서 진행한 ‘심화 학습 컨설팅’과 ‘창틀 채우기’, ‘대학생 적응역량 검사’ 프로젝트는 제가 알고자 했던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은 실제로 저의 1학년 2학기 학교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되었기에 이후 ‘STEP-UP’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2.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시작, STEP-UP 학습법 활동

STEP-UP 학습법 워크숍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기 계발을 위해 UOStory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우들과 달리 1년의 추가 입시를 거쳐 서울시립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힘들었던 입시 생활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서인지 학업과 성적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많이 부족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2학기에는 느슨해진 저를 바로잡고,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려 1학기보다는 열심히, 높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법”을 주제로 하는 STEP-UP 워크숍 신청 공고를 보았을 때, 제가 찾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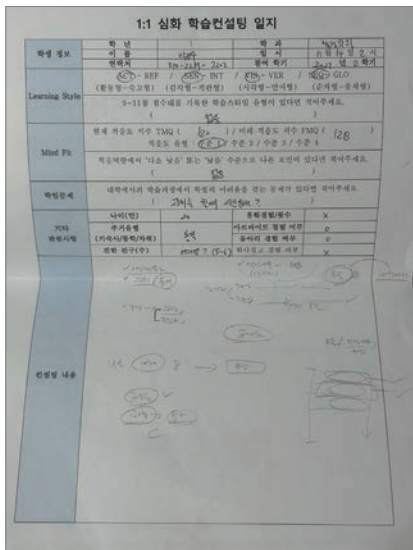
흔히 학우들이 성적 향상 프로그램이나 학업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망설이는 이유가 잦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TEP-UP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오리엔테이션과 상담, 해답식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에 시간적으로 큰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의 녹화 강의를 돌려볼 수 있어 효과적이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습 스타일’ 검사나 ‘마인드핏’ 검사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님과의 개인 상담을 통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과 학업 문제에 대해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서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님

과 긴 대화, 조언을 들으며 ‘나만의 학습 방법’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 활용도와 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자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보상을 지급해 보자는 방안이 의논되었습니다. 1주일에 크고 작은 목표 8개를 설정하고, 그중 5개 이상을 성공하면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8개의 목표를 전부 이루겠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할 수 있기에 기준을 5개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주일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전공 책 1회 읽기” 등 크고 작은 기준을 정하여 천천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를 몇 주간 습관적으로 반복하니 굳이 목표로 설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할 수 있었고, 목표 설정의 개수를 천천히 늘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목표와 학업적인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행정학과 학생회장 출마’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학업 목표와 병행하게 되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오히려 목표를 크게 2가지로 설정하여 각각 다르게 바라보고 준비하자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학기를 돌아보니 정말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과 내에서 약 20년 만에 진행된 경선

이기에 선거에 몰두하여 학업에 절대적인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장 출마’를 개인적인 목표로, ‘전공/교양 공부’를 학업적인 목표로 다르게 설정하니 저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오히려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학업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독서와 같은 자기 계발 목표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중에서도 목표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니, 전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수님과 1:1 심화 상담

#3. 나만의 STEP-UP을 마치고, 참여 성과.

한 학기의 활동을 마치고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고,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느새 저의 작은 습관이 되어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실제 플래너에 작성했던 “날마다 영단어 10개 외우기”는 STEP-UP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목표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시도하고 노력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니 뿌듯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학과 정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학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1학년 2학기는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편하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성적/학업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TEP-UP 프로그램을 듣지 못했더라면, 목표와 시간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면 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성적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행정학과 학생회장'이 되었음과 동시에 전공/교양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직책을 맡은 2학년은 더욱 바쁠 것 같습니다. 다만, 2학년 때도 제가 배운 학습 관리 방법을 활용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받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지난 1년간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STEP-UP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적/학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대인관계를 비롯한 스트레스, 자존감, 목표 지향성 등 다양한 부분을 검사하여 제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친밀한 대인관계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미래 적응도 지수(FMQ)를 함께 제시해 주어 보완해야 할 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STEP-UP 활동을 계기로 저는 전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단계 별로 천천히 나아가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잠시 느슨했던 학업 동기에 다시금 열정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제가 지닌 고유한 장점은 부각시키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의미 있는 과정들이 후에 돌아봤을 때 하나의 멋진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EP-UP'이라는 이름처럼 저도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STEP-UP 프로그램을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들,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학우들, 학교생활에 고민이 있는 학우들에게 추천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철학함’을 가르치며 ‘철학’을 배운 전공튜터링

참여 프로그램 | 전공튜터링

프로그램 참여자 | 철학과 17학번 이건우

우수
상



지난 9월 초, 철학과 조교 선생님께서 ‘전공튜터링’ 학습도우미 튜터로 활동해보지 않겠냐고 권유 해주셨다. 철학과 학회 학회장을 맡고, 여름방학에는 강독 스터디그룹도 꾸려서 공부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보셔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철학과 석사과정 진학을 지망하고 있으니 철학과 전공 교과목 튜터링은 분명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선뜻 참여하기엔 고민스러웠다. 지금껏 많은 스터디와 세미나를 주도하긴 했지만 스터디와 튜터링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껏 진행했던 스터디는 나도 잘 몰라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 전공튜터링 프로그램은 전공·교양 교과목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튜터로, 해당 과목 학습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이 튜터로 참여하여 튜터가 해당 교과목의 학습법 등을 전수해주는 활동이다.

즉, 튜터는 스터디장보다는 더 똑똑해야 하고,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튜터가 튜터링으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거나 이해에 방해되는 혼란을 느껴서는 안 되니 말이다. 그런데 교수님도 석사과정생도 아닌 일개 학부생인 내가 명확한 정답도 없는 철학 교과목을 오해의 여지 없이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선뜻 참여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저학년때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니 고학년 선배의 도움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도 잡기 어려웠던 저학년 시기에는 고학년 선배들이 대략적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그때 선배들이 알려줬던 내용 중에는 일부 부당한 해석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오해로 시작할지라도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것이 나왔다. 그 내용은 틀릴지라도 선배들의 ‘철학함’을 보고 따라하면서 서툴게라도 텍스트에 부딪히고 나름대로 분석했던 1,2학년 시절은 철학 연구자를 목표로 공부하는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나 역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누군가에게 철학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읽기와 쓰기로 나타나는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을테니 말이다. 그래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아니 걱정만

만큼 철학사적 지식은 더 성실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전공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튜터링은 튜티가 희망한 ‘서양철학사1고중세’ 과목을 선정하여 튜티와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행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튜터링 시간에는 수업 내용 복습, 구술문항 문답, 논술문항 풀이 및 첨삭을 진행하였다.

튜터링의 중심을 잡기 위해 교재로 쓸 서양 고대철학사 개론서가 필요하였다. 물론 성실히 공부만 한다면 수업 필기와 교수님의 강의 자료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책 한 권을 참고하면서 복습할 때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학자, 같은 개념을 다루더라도 관점이 다를 때도 있고, 관점 역시 비슷하더라도 풀어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수업과는 다른 표현, 새로운 비유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여 놓친 내용 중 일부는 책을 참고하면서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해당 과목을 수강할 적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중에 한 권을 튜터링 참고교재로 선정하였고 튜티에게도 선물하여 함께 읽으며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참고교재로 선정한 책 외에도 튜티의 수업 필기노트를 참고하여 참고교재에 없거나 빈약한 내용은 따로 튜터링 교안을 만들어 튜터링 시간에는 교안과 교재를 함께 보며 수업내용을 복습하였다. 그리고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묻는 구술문항을 만들어 가서 문답을 진행하였고, 이해한 바를 응용하여 설득력있는 논증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지 논술문항을 통해 확인하고 첨삭하였다.

5

↳자서 말레토스 학파와 피타고라스학파
2022.10.13 (목)

1. 말레토스학파 (교재 pp.39-42)

- 아낙시만드로스·아르케·아웨이(원유)규정자
· 물질 아르케가 특유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며 아르케는 자의적. 그러므로 무한한 감각경험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을 아르케로 상정해야 함.
- 아낙시메네스: 아르케-공기
· 말레토스에게는 아르케가 분열되어 어떻게 정상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따라서 공기의 응축과 희박으로 설명.
· 물질의 차이를 양적인 차이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아르케를 무규정자에서 공기로 바꾼 과정은 우회인가?

2. 피타고라스학파 (교재 pp.43-51)

- 이탈리아 반도 지방의 특성
- 오늘날 지적적 또는 문헌만으로 철학사를 종합할 때, 이오니아 지방은 경험세계의 근원이 되는 물질적 기층에 집중하였고, 이탈리아 반도 지방은 감각경험 배후에서 감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형상에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레토스학파는 이오니아 지방의 특성을 대표하고, 피타고라스학파는 이탈리아 반도 지방의 특성을 대표한다.
- 그러나 정말 당대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대에 뚜렷한 대립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피타고라스학파의 신비주의 종교집단적 성격
· 디오니소스교 > 오르페우스교 > 피타고라스학파
· 오르페우스교가 '영혼의 정화를 주장하며 디오니소스교를 이성적인 설명으로 개척한다면,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르페우스교에서 더 나아가 이성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가 세계를 구성한다고 말하며 오르페우스교를 더욱 더 이성 중심적으로 개척하였다.
-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먼저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았기에 피타고라스 학파 역시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 사상을 종교적이라고만 보기에선 어려울 수도 있다. 오르페우스교는 인간의 영혼, 오늘날 이성과 동시성일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는데, 운명사상에서 육신은 일시적이거나 영혼은 영구적이기에 영혼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만 보기에선 어려울 것이다.

- 말라스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철학은 연속적인가? 비연속적인가? 이유를 설명하시 말라스인들의 신 개념을 말라스의 신개념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말라스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철학은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괄식 좋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일신교'들은 신을 최종원리(제 1원리, 창조자, 근원적인 원리)로 규정한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며, 전지전능하고 또한 전선한 것이다. 그런데 말라스의 신은 조금 다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볼 수 있듯이 신들은 전선하지 않으며, 딱히 전지전능하지도 않다.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풀얼한다. 그러므로 말라스의 '신과 종교'는 그것이 최종원리가 아니고, 그것을 또한 세상의 일부이다. 왜 일신교의 신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까? 말라스인들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을 신적인 것으로 보았다. 태몽이라든지, 통각(가뭄)이라든지, 죽은 같은 것들을 신적인 것들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말라스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던 때문일 것이다. (모이라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음)

> 잘 썼음. 다만 완벽한 답안이 되려면 여기서 곧바로 '종교와 철학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철학 역시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사유 방식이었음을 명시해줘야 함.

>> 혹은, 신화에서도 모이라에 벗어나려는 인간이 묘사되듯이 인간은 신화적 사유에서도 자유를 갈망했다. 그런데 철학 역시 모이라에 대한 앎을 최대한 확장하면서 자유를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같을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 좀 도전적인 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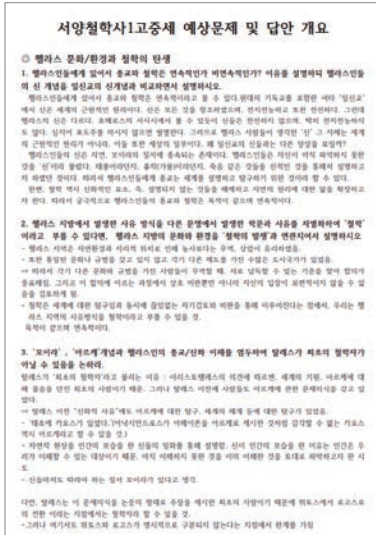
그러므로 말라스인들은 우연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철학) 자신들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신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종교) 말라스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철학은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술문항과 튜티의 답안에 대한 피드백

▲ 참고교재, 수업필기를 정리하고 구술문항을 첨부한 튜터링 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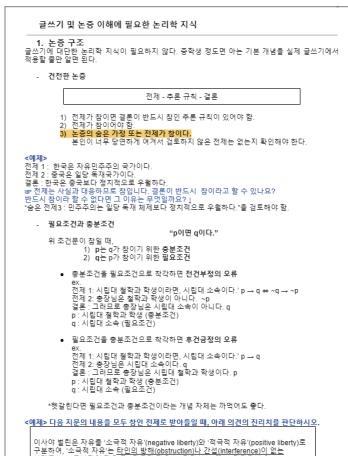
매 시간 만들어 간 논술문항을 모으고 더 다듬어서 기말고사 직전에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로 주었다.

수업내용 복습 외에도 철학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철학적 글쓰기 방법에 대한 교육과 레포트 과제 피드백도 진행하였다. 개인적으로 철학과 전공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독해력이라 생각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비판적 검토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텍스트를 제대로 독해할 수 없다면 이러한 능력과 재능도 빛을 발하기 어렵다. 한편, 텍스트의 전제와 결론은 무엇인지, 전제에서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지, 전제가 참인지, 텍스트가 밝힌 전제 이외에도 숨은 전제는 없는지 제대로 독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비판과 대안 제시의 방향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또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다면 거꾸로 자신의 글도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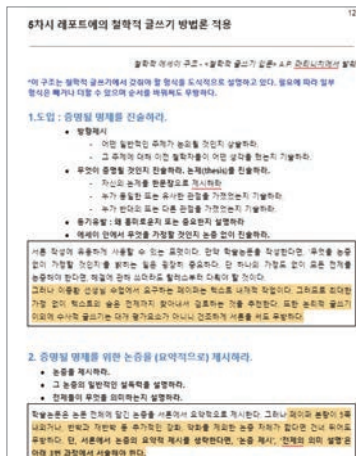


▲기말고사 대비 논술문항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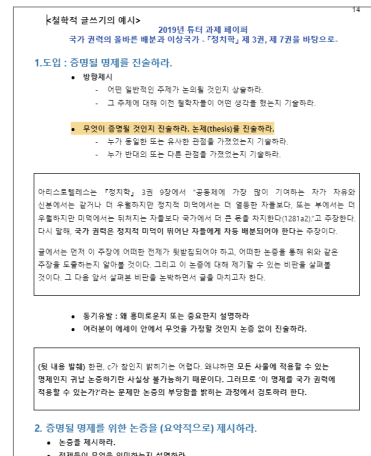
다음에는 철학적 글쓰기에 유용한 글쓰기 포맷을 알려주고 이 글쓰기 포맷에 이전에 교수님 수업에서 모범 레포트로 선정되어 수업시간에 공개해주셨던 내 레포트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써야 잘 쓴 글인지를 알아보았다.



▲글쓰기와 독해를 위한 논리적 지식 튜터링 교안



▲철학적 글쓰기 포맷 교안



▲튜터 레포트 예시

그리고 레포트 과제가 준비하는 시기에는 튜터의 레포트 초고에서 취약한 논증을 반박하고, 튜터는 내 반박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방어 논증을 세우거나 기존의 논증을 수정해나가는 식으로 레포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한 학기동안 튜터링을 통해 튜티는 D+였던 해당 교과목 성적을 B0로 올릴 수 있었다. 솔직히 나와 튜티 모두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다. 하지만 튜티는 튜터링하면서 기말고사 준비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성적도 못 받았을지 모르다며 고맙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처음에는 성적을 보고 튜티보다 훨씬 더 속상해하고 있는 나였지만 튜티가 레포트 평가는 A를 받았다는 것, 내가 만든 기말고사 예상문제에서 실제 기말고사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튜티가 덕을 보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기로 하였다.

정량적 성과는 아쉽긴 하였지만 나와 튜티 모두 스스로 튜터링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튜티는 꼭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튜터링을 통해 철학 교과목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감을 잡아서 앞으로의 대학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보기에 튜티의 글쓰기 능력과 텍스트의 논증을 찾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꽤나 발전하여 부듯했다.

나 역시 튜터링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았다. 먼저 철학사적 지식도 그렇다.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철학사를 다시 꼼꼼히 읽다 보니 이전에는 몰랐던 자세한 내용이나 저학년때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 그저 시험을 보기 위해 암기만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나 논증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현대철학을 공부하고나서 다시 고대철학을 보니 알고 있었던 것 역시 이후 근·현대철학에 끼친 영향과 연관지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들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튜터링을 계기로 텍스트에 대한 메모와 특정 개념에 대한 나의 해석을 개인 위키식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였다. 튜터링 교안을 제작하기 위해서 수업자료와 튜터링 교재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서적을 종종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는 당장 필요한 내용만 인용·요약했는데 참고했던 레퍼런스를 이후에 또 다시 찾아 읽어야 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활동 기간 중반부터는 튜터링을 위해 참고한 텍스트는 간단히라도 요약하여 클라우드에 개인위키식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였고, 이 습관과 구축한 개인 위키는 튜터링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 개인 주제 연구와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공 튜터링 프로그램은 철학과 학생에게도 다른 과 학생에게도 모두 추천한다. 자신이 이전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가르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과목을 다시 볼 때는 분명 새로운 것들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철학과 전공 교과목은 더욱 그렇다.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는 『비철학자를 위한 철학 입문』에서 모든 철학자들은 동시에 철학교사이며 철학자들은 철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런데 알튀세르는 뒤이어 아리송한 말을 한다. 철학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이다. “철학교사는 자기 학생들 앞에서 철학의 위대한 텍스트들과 위대한 저자들을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학생들의 철학함을 도움으로써 철학함-의-욕망을(필로-소피아) 고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철학함을 가르친다.”

나 역시 이 구절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전공튜터링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튜티와 함께 서양고대철학을 살펴보고 해석함으로써 나는 고대철학뿐만 아니라 나의 관심사인 근·현대 정치철학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내가 튜터링에서 가르치는 것은 철학사적 지식이라기보다는 나의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이었다. 그리고 튜티 역시 튜터링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여겼던 성과는 바로 공부 방법의 감을 잡은 것이었다. 나는 철학 교사로서 내가 철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나의 ‘철학함’을 튜티에게 본보기로 보이고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 전공튜터링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학부생인 내가 이런 경험을 하기에는, 알튀세르가 남긴 구절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를 준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학우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려상

김연주(도시사회학과)

박정하(공간정보공학과)

양동혁(국제관계학과)

유동근(경영학부)

발전의 기회를 준 튜터링 프로그램

장려
상



참여 프로그램 | 전공튜터링

프로그램 참여자 | 도시사회학과 20학번 김연주

2022년 2학기, 교수님의 제안으로 ‘영어발음원리와교정’ 과목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영어발음에 자신감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교수님께서 이 과목의 튜터가 되는 것을 제안해주셨을 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튜터링 프로그램 자체가 튜티분들에게 학습내용을 가르쳐주면서, 또 가르쳐주기 위해 준비하면서 튜터인 나 자신도 함께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

했기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교과목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영어발음 원리를 배우고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과목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튜터링을 맡게 된 수업을 2년 전에 수강했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해 기억이 생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복습을 하며 수업 내용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당시 제가 만들었던 정리 노트가 있었는데, 그 정리노트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놓았던 것이 수업 내용을 복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노트를 다시 보며 복습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에 대해 헛갈리는 점,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기록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튜티 분들에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한 뒤에 저는 튜터링을 위한 수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튜터링 때 쓸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저는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저에게도 수업 내용이 학습되고, 튜티 분들에게도 내용 전달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수업자료를

피피티로 제작했습니다. 제 튜터링은 주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것 위주였기 때문에 우선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후에 퀴즈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튜티분들이 퀴즈를 맞출 수 있도록 피피티를 제작했습니다.

오늘 할 것!

1. Intonation
2. Content word & Function word
3. Principles of Accent Assignment

	Content word(내용어)	function word(기능어)
종류	Noun (명사) Verb (동사) Adjective (형용사) Adverb (부사)	Preposition (전치사) Article (관사) Pronoun (대명사) Connective (연결사) Auxiliary verb (조동사)

H1: 영어발음원리와 교정 기말고사 대비 모의시험!

name: _____

제한시간 20분 / 자료 참고x / 다 풀면 제출

1. rounded-r과 light l을 비교하여 작성하세요. (영어로 작성)
2. 입술이 둥그렇게 발음되는 자음이 포함된 단어를 고르세요.
beige zipper chew angel smart resign jam rose feeling edge rouge
3. televi'sion*의 자음과 똑같은 자음이 포함된 단어를 고르세요.
profession crazy legion measure corsage entourage budge unusual
4. ques'tion*의 자음과 똑같은 자음이 포함된 단어를 고르세요.
chicago purchase christmas child patio chef which think mention speech

이에 더해서 튜터링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 때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이 될까?’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튜터링 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튜티분들이 직접 예제를 보고 맞춰보면서 헛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충분히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에 튜터링 시간에는 여러가지 예시문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보다 실전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피티 자료 외에도, 과제에 도움이 되는 테스트 문제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리 풀어보면 좋을 문제들을 직접 제작해서 튜티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직접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수업을 수강하며 풀었던 과제와 시험문제를 다시 참고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44. May I leave ^{L* LH%}now _c or should I wait? ^{H* LL%}

45. Where did Mary buy ^(H*)the _c ^{H*}flower? ^{H* LL%}

46. Would you like ^{L* LH%}coffee, ^{L* LH%}tea, or ^{H* LL%}mi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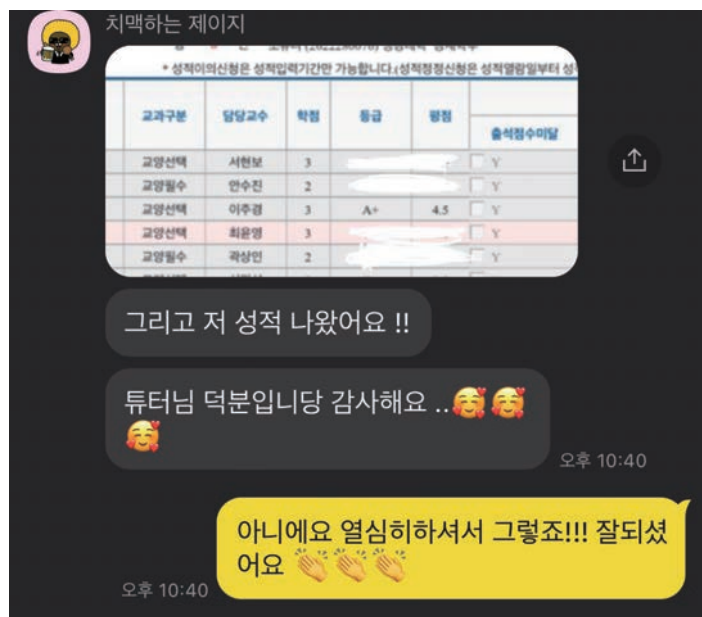
47. Did you buy ^(H*)a _c ^{L* LH%}new _c ^{H*}hat _c or ^{H* LL%}pants?

튜티분들은 과제나 시험에 앞서서 미리 모의 테스트를 풀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튜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튜터링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튜터링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 수업 공부와 더불어서 처음 튜터링을 위한 피피티를 제작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피피티를 미리 다 만들어놓았던 것이 아니라 튜터링 하기 전에 바로바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요령도 없고 ppt 글씨체나 효과 등을 하나하나 다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피피티 형태를 잡아놓으니 그 뒤에는 첫 피피티 자료를 응용해서 만들면 되어서 시간도 단축되었고, 반복적으로 수업자료를 만들다보니 요령이 생겨서 나중에는 편하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자료를 만드는 데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저는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결코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시간도 저에게는 일종의 복습시간과 같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튜터링을 튜티 6명과 함께 일주일에 4시간씩 진행했습니다. 튜티 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튜터링 수업을 듣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1:1 또는 2:1로 나누어 일주일에 4시간씩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튜티분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진도 나가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범위에서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마다 나갈 진도를 4번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다대일 튜터링이 튜티에게도, 튜터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튜터링을 했던 튜티분들은 한 과목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 해 공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데, 튜티가 여러 명이다보니 유동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할 수 있었고 원한다면 더 튜터링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튜티분들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 투자를 통해서 수강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튜터인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 튜티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머리 속에 수업 내용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튜터링을 준비할 때는 튜티들에게 설명할 때 따로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충분히 들지 않아서 자료들을 옆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설명했는데, 반복적으로 설명하다보니 그것이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나중에는 자료 없이도 설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은 튜티에게도, 튜터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튜티는 튜터의 설명을 통해서 수월하게 학습을 해나갈 수



있고 튜터는 튜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설명하고, 학습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절로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튜터링 과목이 '영어발음원리와교정'이었는데, 튜터링을 하면서 실제로도 제 영어발음이 훨씬 자연스럽게 교정됨을 느꼈습니다. 매주, 매 달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장학금도 받고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니 튜터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튜터링이 끝나고, 종강한 뒤 몇몇 튜티분들에게도 연락이 왔었는데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고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도, 하고 난 뒤에도 의미있었고 보람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튜티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 보람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성취도 있기 때문에 튜터링 프로그램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번 학기에 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주적인 학습의 결정체, 학습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 공간정보공학과 21학번 박정하

장려
상



UOS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전공교과, 역량개발 등 다양한 관심 영역에 관하여 자발적 공동체 학습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2-1기까지는 학생들이 진로, 창조, 봉사 세 분야로 나누어 각자 희망하는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2022-2기부터는 스터디 유형과 자유활동 유형 두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2-1기에 창조 유형으로 지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창조 팀들은 공모전, 대외활동, 지역사회참여 등과 같은 외부활동 위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과 지원금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습공동체로 선정되어 ‘공기: 공간을 기획하다’ 팀의 팀장으로서 한 학기 동안 스터디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학습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간데이터 분석과 GIS 활용 능력 함양’입니다. 이는 ‘자기개발 통한 전공 기초 능력 향상’과 ‘공모전, 박람회 참여, 기관 답사를 통한 전공 응용 능력 향상’이라는 세부 목표를 통해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공간정보공학은 국토부터 실내까지 우리 삶의 공간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유의미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내어 사회에 공헌하는 학문입니다. 이번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능력을 길러 공간정보 전문가로 한 걸음 다가가고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UOS 학습공동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 목표를 세운 뒤에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분리하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열심히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세운 계획은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UOS 학습공동체는 활동 초기에 전문가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스터디 기록을 자료로 편집해 남길 것을 추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주신 조언과 독려로 장기적인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계획에 충실하게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공기: 공간을

기획하다' 학습공동체의 활동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람회 관람', '전공 스터디', '공모전 참가', '컨텐츠 제작'입니다.

첫 번째, 박람회 참관 및 기관 답사를 통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공동체에서 한 학기 동안 방문한 박람회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 제3회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②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③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④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입니다. 우선,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박람회를 참관하였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공간정보 분야 산업이 흘러가는 구조와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방문한 후, 제가 분석해보았을 때, 미래 신산업 분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AI, 자율주행 등이 담당하는 것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특히,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였습니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공사 등에서 3D 모델링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전전시관과 지도박물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각 기관에 방문하였을 땐, 진로 탐색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성 등을 활용한 측량데이터 수집 및 보관 업무를 하는데, 우리 국토 정보의 대부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와 함께 동해 분쟁 관련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대외활동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람회 및 기관 답사를 통해 저는 전공활용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 탐색 및 산업 동향까지 파악하며, 단순히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전공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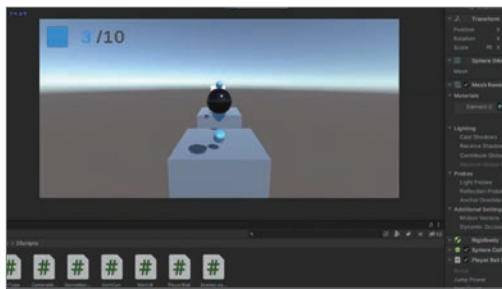
▲ 박람회 참가 모습



▲ 지도박물관 견학 모습

두 번째, 팀원들과 함께 전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전공 수행 능력 함양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언어와 데이터베이스(DB)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컴퓨팅 언어 학습은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배워보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팅 언어는 3D 모델링에 자주 활용되는

게임개발 소프트웨어 Unity를 활용하기 위해 C#을 학습하였고, 더 나아가 Unity 프로그램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C#은 교재 ‘이것이 C#이다.’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C#의 경우 학습한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하여 작성했다. 다음으로는 게임엔진 Unity를 학습하였다. Unity의 경우,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물체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게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여 각자 게임을 제작해보았고 3종류의 간단한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게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①: 공을 움직여 젤리를 먹는 게임. 마찰력이 적은 구를 사용한 점과 점프 모션이 특징입니다. 게임 ②: 맵 안에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임. 물리법칙을 적용하기 좋은 자동차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 ③: 시간 안에 자동차로 맵을 끝까지 주행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대규모 배경 오브젝트를 구성한 것이 특징. 제한 시간, 타이머, 게임 시작과 종료 등 게임의 구성을 많이 갖춘 장점이 있습니다. 스터디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팀원들과 한 주 분량의 학습 범위를 지정하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온 것을 인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습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하고, 실습에서도 어려운 점을 공유하며 점진적으로 학습해나갔습니다. 모든 내용이 전공 교과목에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의 예습 개념이 되었고 덕분에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으로는 부족하던 전공 내용을 익히고, 다시 전공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값있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 게임 ① 영상



▲ 게임 ③ 영상

세 번째, 스터디를 진행하며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활용에 관한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4회 SGI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SGIS란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약자로서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합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까지 ArcMap, Matlab 등을 활용하여 GIS를 학습하여, 통계자료를 행정구역 별로 분석하여 공간적 특성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SGIS 제공 서비스를 이해하고 대중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모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내용은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며 괴로워하는 순간마다 지리정보서비스 요정이 SGIS를 활용하여 고민을 해결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영상을 통해 ‘살고싶은 우리동네’, ‘일자리맵’ 서비스 사용법을 익히고 SGIS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획 및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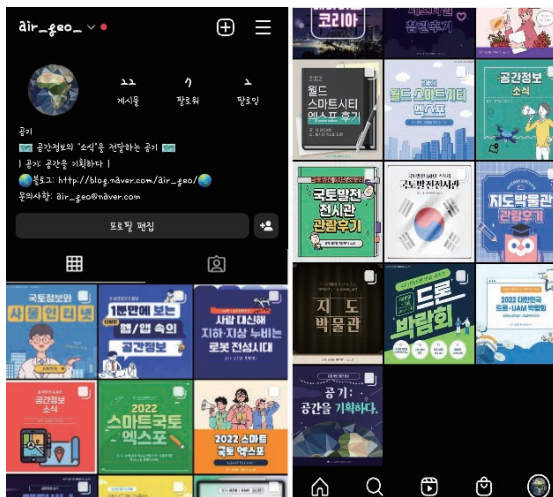


▲ 공모전 준비 모습



▲ 공모전 영상 편집 화면

네 번째, 카드뉴스와 블로그에 스터디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히 저희끼리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주 새로운 카드뉴스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카드뉴스의 주된 내용은 박람회 참가 및 답사 후기가 되었고, 답사가 없는 주에는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을 찾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C#과 Matlab 같은 전공 스터디 내용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쌓여가는 콘텐츠를 볼 때마다 보람이 느껴지고, 학습 내용과 소감을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배운 것이 더 오래 남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이 향상되어 향후 다양한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스타그램 운영



▲ 블로그 운영

지금까지 저희의 활동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만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매주 박람회 참가와 스터디, 콘텐츠 업로드 등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스케줄 조율이 힘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동체 활동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지쳐가는 팀원들도 있었지만 저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독려하며 학습공동체를 유지하였습니다. 일정이 바듯해진 만큼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각 팀원에게 매주

수행할 내용을 정해주고 다함께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참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중간간담회를 통해 다른 팀원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공유하며 우리 공동체가 자극을 받고 더욱 끈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간담회 이후 저희는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게 활동에 임했고 끝까지 성실하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학생들이 UOS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분들의 도움과 넉넉한 지원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활동하였기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UOS 학습공동체에 참가하기 위해 마음이 잘 맞는 팀원들을 모았고 함께 관심 분야를 학습하며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기관 답사나 공모전 참가 등은 많은 지원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는 팀원들과 함께 전공 수행 능력을 길렀고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 작성했던 카드뉴스와 블로그 등으로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전에 입상하는 유의미한 성과도 내었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 종료 이후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저희의 활동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진정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우수활동팀으로 선정되어 총장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UOS 학습공동체를 계기로 팀원들과 함께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모전에 도전하고 학습했던 내용을 살려 3D 모델링 연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UOS 학습공동체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UOS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더 넓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장려 상

후회하지 않는 선택

참여 프로그램 | STEP-UP

프로그램 참여자 | 국제관계학과 17학번 양동혁

지원동기

나는 고등학교 때 누구보다 치열하게 내신을 대비했고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을 가야하는 이유,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 가졌고 In Seoul이라는 목표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대학교 1학년 1학기 시작되고 짜인 시간표대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이 학교를 목표로 했고 학과 내 전공공부에 흥미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외무고시, 무역 공기업, 국제기구를 들어가는데 하나의 계단으로 생각하여 대학이라는 기회를 살리려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하지만 나는 전공수업에 대한 흥미가 없었고, 내가 이 대학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부족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 멀어졌고 2년 간 전공필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같은 학과 동기들은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없었고, 동기들과 멀어지고, 학교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갔다. 2학년부터는 연합동아리에 가입하여 여행을 다니며 매달 놀러갔고, 학과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해 '국사학과'를 복수전공하며 그나마 고등학교 때 잘했던 것을 살려 본 전공으로부터 도피했다. 남들과 같이 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는데 무언가 이루려고 하기보다 운동, 연애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이런 방탕한 나의 대학생활은 4학년 1학기에 표출되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수업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이 시기에는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고 수업을 듣지 않아 학사경고를 받은 것이다. 부모님에게도 통지가 갔고 나의 학비를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시는 어머니에게는 큰 허탈감을 받으신 것 같았다. 4학년 2학기를 시작하기 전 나는 그제서야 나의 대학생활을 돌아보았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를 믿고 서울에 대학을 보내준 부모님과 나에게 기대를 걸었던 주변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했다. 4학년 2학기 마지막학기를 두고 내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전공과목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며 졸업 전 전공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배워가려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러던 중 'STEP-UP'이라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부족한 학습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성적향상에 대한 포상금을 받기 위한 동기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다.

STEP-UP

고등학교 때 나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가장 성적향상도가 높은 학생에게 주는 상을 2번 수상하였다. 하지만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할 명분이 없었고 제공되는 무한정의 자유에 나는 풀어졌다. 5년 간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마인드셋과 나를 다시 바로잡아줄 프로그램이 필요했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학습방법이 있었겠지만 나에게서는 그 방식이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부재했다고 여겼고 STEP-UP 프로그램 내 ‘집중의 3단계’와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 찾기’라는 과정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1) 집중의 3단계

집중의 3단계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기 싫더라도 일단 의자에 앉아 책을 피라는 것이다. 실제로서 학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가벼운 집중도를 유지하는 이 1단계는 공부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 매일 공부시간을 잡아 하루하루 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정해진 시간에는 무조건 자리에 앉아 해야 할 일을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2번 째 단계는 적절한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부터가 공부자료에 집중하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이며 1번 째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뇌는 자연스럽게 눈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고 집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1,2단계를 종합하면 공부가 힘들어서 하기 싫더라도 일단 자리에 앉아 5분만 있으면 몸은 저절로 집중의 2단계에 접어들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유혹이 들며 집중을 온전히 하지는 못하고 다른 것에 방해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3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지만 2단계에서 유혹을 이겨내 적절한 집중도를 이겨내면 3단계에서는 나의 온 신경이 처리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며 완전히 자료에 빠지고 최상의 학습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의 지속시간은 40분 정도이며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는 5분이 지났다고 생각하여도 실제로는 40분이 흘러가는 상태이며 효율성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나는 이것을 현재 공부에 접목시켜봤을 때 10분 간 어떻게든 앉아있으려고 하였으나 3단계 깊은 집중도의 상태로 가지 못하고 1,2단계를 왔다갔다하며 결국 20분에서 30분 정도 되었을 때 휴대폰을 보았다. 역시 공부습관이 아직 덜 잡혀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 STEP-UP의 다음단계인 집중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집중력 3단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2) 집중력 향상 방법

아무리 집중력의 단계를 이행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어려웠고 STEP-UP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과학적인 방법은 3단계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먼저 주의력을 높이는 것을 제시해주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사서 내가 1주일, 1달, 1년 단위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1주일에는 중간과제와 기말과제를

목표로 했고, 1달 동안의 목표는 자격증 시험과 봉사시간을 채우는 것이었다(졸업요건), 그리고 1학기의 목표는 STEP-UP에서 주는 최대 성적향상 장학금을 따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최종목표는 이번 학기를 4.0이상으로 졸업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성공적인 마인드 셋을 가지고 2023년 ‘경찰간부’ 시험을 도전해 2024년 경찰이 되는 것이었다.

이번학기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취업준비를 할 때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공부 방법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학기에 임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주변에는 나를 당장에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나는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휴대폰의 알람을 전부 끄고 공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다. 또한 방에서 공부를 하면 옆에 침대가 있기에 무조건 도서관 또는 정독실에 가서 옆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며 공부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컸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공부시간과 공부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오늘 아무리 집중력 있게 과제를 수행했어도 휴대폰으로 영화를 늦게까지 보고 자거나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몸과 정신상태가 흐트러진다. 나는 한 학기동안 이전에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려고 했다. 우선 오후 11시에는 무조건 취침하고 아침 7시에 기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샤워를 한 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목표를 다짐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항상 웰니스 센터 또는 기숙사 내 헬스장을 이용하여 땀을 흘리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 2023년이 된 지금 나는 작년 한 학기동안 만들어 온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향상된 운동수행능력과 좋은 공부습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다고 생각한다.

3) 나에게 적합한 학습방법 찾기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고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하면 ILS 학습스타일 진단 프로그램으로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은 것이다. 학습유형별로 8가지 항목 중 나에게 맞는 4가지 스타일을 찾은 것이었다. 나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것보다 나의 언어로 수업내용을 요약해보고, 공부내용을 소리 내며 읽을 때 더 기억에 잘 남는 언어형 학습자였다. 또한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할 때 총체적인 큰 틀을 머리 속에 넣은 다음 세부적인 항목을 공부해야 공부효율이 더 좋은 총체형 학습자이다. 3번 째로는 나는 활동형 학습자였는데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 각자 배운 것을 설명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마지막은 감각형 학습자였고 나는 공부를 하는 동기를 일깨워주고자 공부를 게임에 대입하여 경쟁자를 두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고 이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해주었다.

STEP-UP 프로그램을 마치며

사람들의 성격은 유년기에 형성이 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학습방법을 대입 전 고등학교 때까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나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학습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STEP-UP에서는 나에게 '집중력'이란 무엇인지 집중력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학습방법 결과지를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의 공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앞선 지원동기에서처럼 나는 전공과목이 어려웠고, 복수전공, 교양을 통해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이렇게 도망만 치다 나는 졸업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망칠 것 같았다. 마지막 나의 잠재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나의 학습능력을 극상으로 올려 사회에 나아가고 싶었다. STEP-UP의 프로그램 하나하나에서 나는 기존에 내가 부족했던 공부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되었다. 저번 학기 공부를 포기하여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이번 학기의 단기적인 목표인 4.0을 넘기 위해 나 자신을 시험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학점을 4.0을 받을 수 있었다. 좋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대학공부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서울시립대에 감사한다.



장려 상

외적, 내적 성장 모두 이룰 수 있었던 시간들

참여 프로그램 |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참여자 | 경영학부 19학번 유동근

1.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동기

‘공공부문디지털전환전략’ 수업은 서울시설공단 산하의 지하도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강의였습니다. 강의의 전반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자료들을 읽으며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고 후반부에는 소상공인들과 자주 접촉하며 전반부 강의에 학습했던 부분을 직접 실전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실습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배운 지식을 직접 적용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영학부 학생으로 공부한 내용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을 해보는 ‘공공부문 디지털전환전략’이라는 강의를 22년 1학기에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강자의 후기를 들어볼 수 없어서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프로그램 참여 내용

전반부 강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교수님이 온라인강의실에 업로드 해주신 동영상을 청취하며 관련 지식을 정리했고, 수업 시간에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팀원과 간단한 프로젝트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는 후반부 강의에 예정된 온라인 스토어를 미리 구상해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팀이 맡게 된 점포의 잠재 고객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또 그 고객을 유인하는 방안과 고객의 경험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고민해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이후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객경험 증대전략	타겟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고객간 상호작용 - 각종 지도 어플에 상호 등록을 하고 고객이 현재 위치로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수 경로를 점부(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지도 포함)(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 이용) 어플 통해 오프라인 고객의 편의성 증대 • 고객-기업간 - 타겟 고객 유인 방안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쇼핑 바구니 대여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친근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 이 과정에서 체험한 상품이 어떠했는지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며 그 의견을 상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음. 	<p># 하나의 상품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품, 인테리어와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보여줌. 시각적인 효과 극대화.</p> <p>Ex) 대형 바구니 사진을 찍을 때, 그 상품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사용된 공간 전체 환경을 보여준다. 공간을 구성할 때 '동해바구니'의 다른 상품들도 활용. (선반, 장판 등)</p> <p># 타겟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SNS(카카오토크, 네이버 밴드)를 통해 광고를 한다면, 그 광고 이미지/게시물을 구매할 때 인증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혜택 제공.</p> <p># (저희 조가 파악하기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은 40대 이상 중년 이상, 이들에게 일정한 보증을 받고 라탄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대여 기회 제공. 이 기간 중 고객의 마음에 들 경우 동일 제품으로 배송하거나, 반납 없이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방안.</p>

▲ 강의시간에 직접 고민해 본 고객 관련 전략들

실제로 제가 맡게 된 점포는 '라탄바구니'를 취급하는 곳이었으며, 인테리어 목적으로 이용되는 라탄바구니 특성상 타겟 고객을 선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 고객의 상품 구매 경로를 짚보며 고객을 이해하는 작업을 거쳤고, 이는 스마트스토어의 방향성을 미리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라탄바구니 특성상 상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초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략 설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팀은 수업시간에 다른 기업이 적용한 사례들을 저희 점포에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이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사례를 보고, 저희 팀도 라탄바구니의 제작과정과 장점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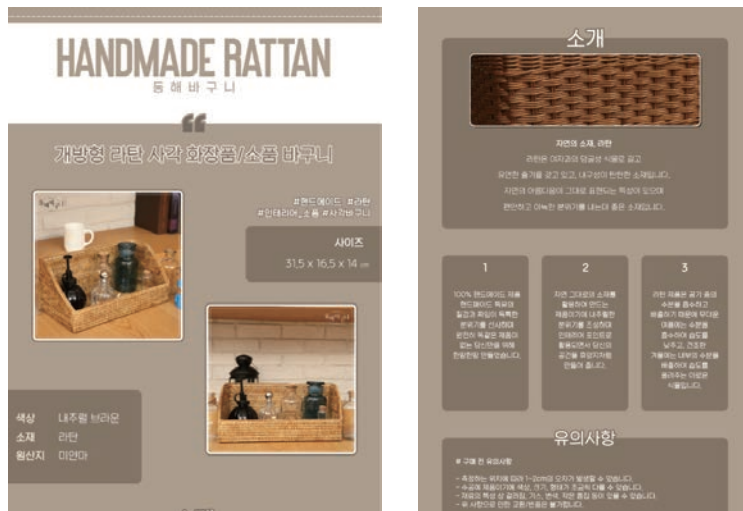
후반부 강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스마트스토어에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의논을 거친 후 지하도 상가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에 게시할 사진을 촬영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점주님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었고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소통을 통해 스토어 개설에 성공했고 상품을 등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상품명부터 상세페이지, 그리고 가격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에 매진했고 무사히 새로운 스토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워 보였던 스마트스토어 운영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강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스마트스토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이미지 툴을 이용해 타 전문 라탄바구니 업체와 유사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의 경우 전반적인 상품을 홍보하는 템플릿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타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소개 부분만 변경하면 상세페이지를 쉽게 수정, 제작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SNS 계정에 올라가는 이미지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해 저희가 맡은 점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워터마크의 경우 추가로 상품을 홍보할 경우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면 미디어 채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이 많기에 그들에게 이해 가능한, 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의 시간에 강조를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스마트스토어 관리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스튜디오에서 상품 촬영을 하고 워터마크를 입힌 이미지

강의의 마지막 주차에는 이 모든 활동들을 종합해 프로젝트의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하도 상가 운영 담당자 분들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관리를 맡고 계시는 프로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 실제 제작한 스마트스토어 내 상세페이지

3. 참여 성과

‘공공부문디지털전환전략’이라는 서비스러닝 강의를 통해 학업적인 성과 그리고 내적인 성과 모두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이론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얻은 학업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케팅 과목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했지만, 배웠던 부분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막막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했던 소상공인의 기업이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는 아니었지만, 경영과 관련된 전략을 만들었던 부분은 그동안 배웠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고, 더 다양한 기업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서비스러닝 강의를 통해 이런 전공 지식만이 아니라, 전공 이외의 영역,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가며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점 역시 학업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의 중간중간마다 있었던 특강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대부분 저처럼 스마트스토어를 수업 시간을 통해 처음 개설해 보는 것이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준비와 관련된 이런 어려움들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상품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다양한 통계 사이트들을 통해 검색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라는 의견을 받았고, 이런 피드백을 반영해 저희 팀만의 창의적인 상품명을 선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러닝 강의를 통해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내적인 성과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대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 많기에, 대부분의 소통은 학생들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비스러닝 강의를 통해 캠퍼스 이외의 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도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전반적인 스마트스토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까지의 모든 일을 소통으로 풀어가려고 많은 시간을 들였기에, 그 과정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 네이버 데이터랩, 키워드 클릭량을 활용해 상품명/상위 노출 전략 짜보기

4. 프로그램 추천 이유 및 소감

앞서 적은 것처럼, 공공부문디지털전환전략이라는 서비스러닝 강의를 통해 개인적인 외적,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서울

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영학부 수업의 특성상 실습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 기회를 갖는다면 대학생활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프로젝트 과목이기에, 또 매주 학습해야 하는 동영상과 풀어야 하는 퀴즈가 있기에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프로젝트 시간이 주어지는 강의 시간을 잘 이용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지식이란 좋은 목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비스러닝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추후 경영학부 강의를 통해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마음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발행일 | 2023년 3월

| 기 획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제 작 | 디자인새로

| 문 의 | 02-6490-6024

copyright@2023

본 수상작품집의 저작권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습니다.

U, Our Star!
그대, CTL을 밝히는 별이 되어라!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02504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미디어관 403호

Tel. 02.6490.6024 Fax. 02.6490.6029. H.P. <http://ctl.uos.ac.kr>